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땅과 순환하는 토마토

두번째 이야기

한마음 그대로이고픈 농부

세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6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며 흙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농부, 아침토마토농장

여름이 오나 싶으면 생각나는 채소들. 그중에서도 빨갭게 익은 토마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얇은 껍질안에서 터져나오는 신선한 토마토의 맛과 향 없이 여름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마르쉐에서도 매년 이맘때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토마토 농부가 있다. 깨끗한 흙과 물로 뒷맛이 깔끔한 옛날 토마토의 맛을 길러내는 아침토마토농장이다.

한적한 전원 주택들 가운데 오롯이 자리한 비닐하우스 여섯동. 수시로 풀을 잡아주고 음악을 틀어주는 하우스 안은 깔끔하고 단정해, 구석구석 세심하게 닿은 농부의 손길이 느껴진다. 토마토 농부로 귀농한 지 5년차, 여전히 직접 키우고 나누는게 재미있고 신난다는 곽삼수 농부님을 만났다. 우리가 방문한 날 새벽에 나무를 다 정리해놔서 농장에는 아쉽게도 파란 작은 열매들만 남아있었는데, 마침 수확해둔 토마토 몇알을 건내주신다. 아침에 통째로 그냥 베어먹는 토마토가 가장 맛있다는 농부님의 말대로, 나무에서 빨갭게 다 익은 뒤 수확한 토마토는 그 자체로 신선한 맛이 가득했다.

하우스 토마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5월 중순,
맛있는 토마토 농사가 재미있는 농부, 아침토마토농장을 만났다.

아침토마토농장

두 번째 이야기

한마음 그대로이고픈 농부



농사가 재미있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토마토 농사 5년차예요. 이 밭에서 4년째 하고 있어요. 퇴촌에 들어온지는 10년 됐어요. 여행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봤는데 좋아서 들어오게 됐죠. 자연도 좋고 인구도 적고. 둘째 아이가 천식이 심해서 고생이 심했는데, 여기 오면 좀 낫겠다 싶었죠. 정말로 여기 오니 저절로 나아어요. 그 사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네요.

그 전에 무역업을 해서, 가족 모두 외국에 오래 살다 왔어요. 이동네로 오니 농사 짓고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뭔가 키우고 돌보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베짱이농부님네 체험농사에 참여했다가 나도 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다들 집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특별히 힘들다 생각은 안했었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농장 땅은 빌려서 쓰고 있어요. 농사 1~2년 짓다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빌려주셨어요. 이 지역은 다들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 어려워 농지원부 같은 건 못 내고 있어요. 경기도 인근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부로 증명이 안되는 상황은 다들 똑같은 거예요.

농사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먹거리 전쟁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직접 해보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소득도 괜찮고,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10여 년을 외국에서 돌아다니며 살다보니 사람에 차이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농사짓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게 첫번째로 좋았죠.

저는 키우고 하는게 재밌어요. 농사가 잘 맞아요. 제가 키운게 맛있다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웃고 하면 그게 재밌고 신기하고 뿌듯해요. 농장에 오면 힘이 나요. 뭐든 재미있어야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한데, 제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요. 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골프도 볼링도 잘쳐요. 공도 잘 차고요. 기본적으로 몸으로 하는 걸 다 좋아해요.

작년까지는 두개의 일을 병행했는데, 퇴근하고 힘들어도 농장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힘이 더 나

더라고요. 150~200% 힘이 더 나요. 이걸 내꺼니까. 농사가 진절머리 나서 하기 싫다 하면 아예 접어야 해요. 할 게 없어서 농사 해야겠다고 하면 글썄요, 못버티지 않을까요. 아내도 제가 하우스 들어가면 왜 밥 먹으러 올 생각을 안한다고 해요.

토마토를 선택하게 된 것은 체험농장을 했던 인연으로 시작했어요. 토마토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이 지역이 원래 토마토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작물이 이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이유가 있을테니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토마토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은 쪼그려 앉아서 결순 따고 열매 따는 일이지요. 토마토 나무는 키가 크니 토마토는 키가 있어서 잎과 잎 사이 줄기를 1단으로 치고 앉아서도 봐줘요. 밑에서 보면 배꼽이 썩은게 보이거든요. 제일 아래 1단 딸 때 쪼그리고 해야하니 힘들고 그 다음단으로 올라갈수록 쉬워요.

어릴적에 집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아무래도 기본이 있어요. 아예 모르고 생짜면 진짜 힘들었겠지만. 제 나이대는 집에서 농사 일 도우면서 큰 사람이 많을거예요. 그래서인지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농사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작년까지는 농사를 아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다른 일을 병행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요. 아들은 제가 하라는대로만 하니까 맛은 유지가 됐지만, 아무래도 나무도 작게 자라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요. 올해부터는 제가 전업으로 하는 중이에요.

고정 수입은 아내가 벌고, 저는 흑여 수입이 안나도 농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내에게 농사일은 절대 하지 말고 제가 다 할테니 팔아달라고만 했어요.

이제 농장 수입이 주 수입이 되었으나 크게 걱정

하지는 않아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니까요. 아내도 자기 일을 하고 있고요. 욕심이 크면 한도 끝도 없죠. 앞으로 저렴한 땅이 있으면 농사 지을 땅을 사고 싶어요. 살 집도 딱 8~10평 정도로 지어서요. 그러면 하고 싶은 농사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하고 싶다 하면 먼저 그냥 해요. 하다가 방법을 찾아요. 처음부터 이거하면 얼마벌고 어찌고 재지 않고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농사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땅 조성하고 집주고 해도 농사짓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지어요. 저는 전업농 생활이 괜찮아요. 숨쉬고 살만해요. 많은 사람들 로망이 나이들어서 전원주택 가지고 농사 한다는 건데, 안 돼요. 젊어서 해야 해요. 젊어서 한다면 저는 농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매력 있어요. 복잡하게 부대끼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제 장점은 무대포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러다 토마토 병 나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어찌냐 할때 저는 ‘다시 심으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그래요. 젊을 때부터 성격이 이래서 사업하며 실패도 많이 했어요. 하하~ 시작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시작하면 돼요. 별거 없더라고요. 농사는 겁만 안 먹으면 된다고, 남들에게도 그래요.



농작물은 농부 발자국 먹고 살아요,
정말로

농사철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일과표도 따로 있는게 아니라, 보통 해가 떠 있어서 앞이 좀 보이면 시작했다가, 안 보이면 끝내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 5시 반쯤에 나왔어요. 토마토가 보일정도

로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아침 먹고 가장 뜨거울 때 3시간 정도 쉬고. 그렇게 3~4시부터 8시쯤, 해떨어져서 안보일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 밥은 집에 가서 먹고요.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머리에 랜턴 달고 농장 왔다갔다 하면서 낮에 못하는 일을 밤에도 많이 해요. 더 시원하고 좋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면 컴퓨터 켜고 홍보 좀 하고 자요.

지금은 겨울부터 봄까지는 수입 없이 나는 거예요. 농가 수익이 일년에 절반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해요. 겨울에는 작물 키우는 게 없어도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계속 줘요. 한해 농사 끝나고 토마토 나무를 다시 갈아 넣은 후에 하루 10시간 지하수를 계속 주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거죠.

차차 오색토마토도 심어보려고 해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리려고 계획중인 하우스에서는 토마토 외에 다른 걸 키우려고요. 연중 일정 수입이 되는 농사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가지, 오이, 호박 같은 것으로요. 구조가 나오면 농사짓기 편하겠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농사 규모는 혼자 하면 좀 벅차요. 올해 한 명이 도와주면서 3~4동 정도 늘릴 계획은 있었어요. 내년엔 계획중이에요. 다른 하우스들 없는 동 떨어진 곳에 구하고 싶어요. 붙어있으면 옆집에서 약 치면 벌레가 다 이리로 와서 힘들거든요.

벌레보다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하우스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농부 사이의 철칙이죠. 서로 하우스 안에 안 들어가요. 사람이 옮기는 바이러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토마토 나무가 사람을 타요. 체험농장하면서 보니, 아이들에게 따는 걸 가르쳐주면서 어른들도 같이 농장을 다니고 나면 다음날 나무들이 다 시들어요. 그거 회복 기간이 3~4일 걸려요. 다음날부터 주인이 왔다갔다 해주면 살아나요. 농작물은 농부 발자국 먹고 살아요, 정말로.

손님도 농부도 한결 같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농사지으면서 하우스가 한 10개 쯤 되면 관행으로 할 거 같아요. 크게 지어서 가락동에 내면 되니까요. 직거래 품을 줄일 수 있죠. 그만큼의 규모가 안되면 소규모로 하면서 알짜로 지으면 돼요.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 들어가서 판매



하려면, 소규모 농사는 완전 적자일테니까요.

마르쉐에는 베짚이농부님 소개로 나가기 시작해서 3년차예요. 우연히 한번 가보자 해서 같이 갔다가 인연이 되어 나가기 시작했죠. 저도 필요했거든요. 이런 직거래 장터를 3개 정도 다니는데, 하다보니 장터 참여가 농부들에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 장터가 없어서 못 파는 농부들이 많거든요. 농부가 소비자와 직거래 하면 가격을 떠나 일단 좋은 농산물을 가장 싱싱할 때 공급하는 게 가능하죠.

소비자도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저



희 농장의 유통구조가 균형이 맞고 딱 좋아요.
이 규모로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 맡기면
돈을 못 벌어요. 소규모로 하는 농부들에게는 이
런 농부시장이 정말 좋은 구조예요.

직거래 택배, 마르쉐 같은 직거래 시장, 농장 앞
매대 판매. 이렇게 해서 다 팔아요. 생과 기준으
로 시장에서 60%, 택배로 40% 비율로 판매해요.
아내가 판매를 잘 해요. 마르쉐에서도 드셔보신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고요.

보통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시장 손님들이 이후
택배로도 많이 찾으시고요. 연결이 많이 되죠.

농장 앞길이 등산로로 이어져 있어 농장 앞에서 팔면 꽤 팔려요. 팔리는 것도 그렇지만, 입소문도 많이 타고요. 여기서 파는 건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후 택배로 연결이 많이 돼요.

일반 소비자들이 꾸준히 사주시는 게 중요하죠. 매년 기다려서 사주고,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하면 더 좋기는 하지만, 계약재배를 해도 다 주고싶진 않아요. 2동만 주고 3동은 내 직거래 손님 주고 싶어요. 초기에 마음 먹은 게 그거거든요. 손님에게 맛있는 토마토를 주는 기쁨, 그 맛에 농사 짓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양하세요. 손님도 농부도 한결 같으면 좋겠어요. 농부도 처음에 마음 먹은대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기후에 따라 맛에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믿고 사주고요. 맛있으면 더 좋은 거고 없어도 이번에는 맛이 없구나 하면서 한결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손님들마다 다 마음이 다르니 농부는 한마음 그대로 있어야겠죠.